

이 자료는 10월 21일(목) 석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

보 도 자 료

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

• 문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회적가치혁신실 김홍찬 실장(044-300-0340), 이수지 주임(044-300-0343)

• 배포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보전략팀 김민철 팀장(044-300-0230), 정민규 책임(0231)

TIPA, 지역 중소기업 대상 ‘안전패키지서비스’ 지원

- 대전·세종 소재 공공기관과 혁신네트워크 구성해 안전점검·교육·물품 지원 -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TIPA)이 10월 18일(월)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‘안전패키지서비스’ 지원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.
- 안전패키지서비스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지원 대상 수요 발굴부터 안전점검·교육·안전물품 기부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사업으로, 대전·세종 소재 지역 공공기관과 ‘혁신네트워크’를 구성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.
- TIPA는 금번 지원업체로 대전시 소재 지역 중소기업인 (주)지엘테크에 방문했다. (주)지엘테크(대표 김호환)는 반도체 측정장비 제조업체로 TIPA가 지원하는 시장친화형기능개선R&D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.
- TIPA는 금번 안전패키지서비스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적용이 임박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,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업 근로종사자를 위한 산업용 구급상자를 기부하였다.

- 또한, 한전원자력연료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(주)지엘테크를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과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·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. 아울러 ‘안전패키지서비스’에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 협업기관*과 함께 소화기, KF94마스크, 손소독제 등 산업안전·소방·방역 관련 물품 기부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했다.

* 안전패키지 참여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한국원자력연료(주)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정보통신기획평가원, 한국가스기술공사, 한국연구재단

- TIPA 이재홍 원장은 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업체 대다수가 안전에 취약한 중소제조업체로써, 앞으로도 ‘아차사고’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”라고 전했다.

<사진>



△ 왼쪽부터 다섯 번째 (주)지엘테크 김호환 대표
△ 오른쪽에서 두 번째 TIPA 사회적가치혁신실 김홍찬 실장